

2017. 제3회

강원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강원도립대학교
GANGWON STATE UNIVERSITY

2017학년도 제3회 강원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 발언요지

< 개 요 >

◇ 심의일자 : 2017. 9. 29.[금] / [서면]

◇ 참석위원 : 총 15인 중 11인 참석

- 참석위원 : 박옥연, 김왕제, 장일재, 박석규, 한동준, 박병수,
최교호, 최명섭, 김용태, 장원준, 이정민

- 간 사 : 소은주



◇ 심의안건

- 2017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

위원별 주요 발언 요지

발언자	발 언 주 요 내 용
간 사	<2017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기준(안) 제안설명> 대학회계에서 교직원에게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활동과 실적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교육.연구.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4:2:4의 비율로 지급하고자 함. 활동계획서 40%, 실적보고서 40%, 활동실적 심사 20%로 평가 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 11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활동계획서, 실적보고서, 차등 지급 심의를 함.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평가기간 동안 총장, 전임교원, 조교 등 45명에 대해 총 252,630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의 지급계획 및 영역별 평가 기준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람.
위원장	본 안건은 교육부의 “2017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실적인정 기간 및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 시기 등 비용 지급을 위한 교육연구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강원도와 협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재정위원회 심의 시, 기본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되어 급일 재정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게 되었음. 소속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을 장려하고, 평가와 보상을 통한 교직원 실적 향상을 위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
장일재 위원	재정위원회 심의 전, 학생지도비 지급관련 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그 결과를 도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최종 합의를 마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와 수정된 사안. 단, 마련된 지급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 실적 평가가 이루어져서 취지에 걸맞는 효과가 있기를 바람.
위원장	장일재 위원의 말씀처럼 본 건은 강원도와의 협의 과정 중에 의견 차이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되었음.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학생지도 활동에 있어 동기부여가 되기를 기대 해 봄. 2017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에 대해 전체 위원들이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재정위원회 주요발언 요지(회의록) 날인자는 대학 내부 위원중에 위원장인 본인과, 장일재 위원, 박석규 위원으로 하고자 함.